

대한민국 데이터 19 프로젝트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2021. 2. 17.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 데이터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활용이 경제의 핵심을 담당
-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결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확산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데이터의 기

- 코로나를 계기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디지털 K-방역으로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고조

* 코로나19 초반 마스크 대란을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극복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정책 재설계 필요

데이터에 주목해야 할 4가지 이유



REduce(절감)

기업·정부·개인의 비효율을 감소시키며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실패 축소



REinvent(재창출)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기존 영역을 탈피한 새로운 비즈니스·서비스 재창출



REsolve(문제해결)

데이터를 분석한 모니터링·추적·예측·대응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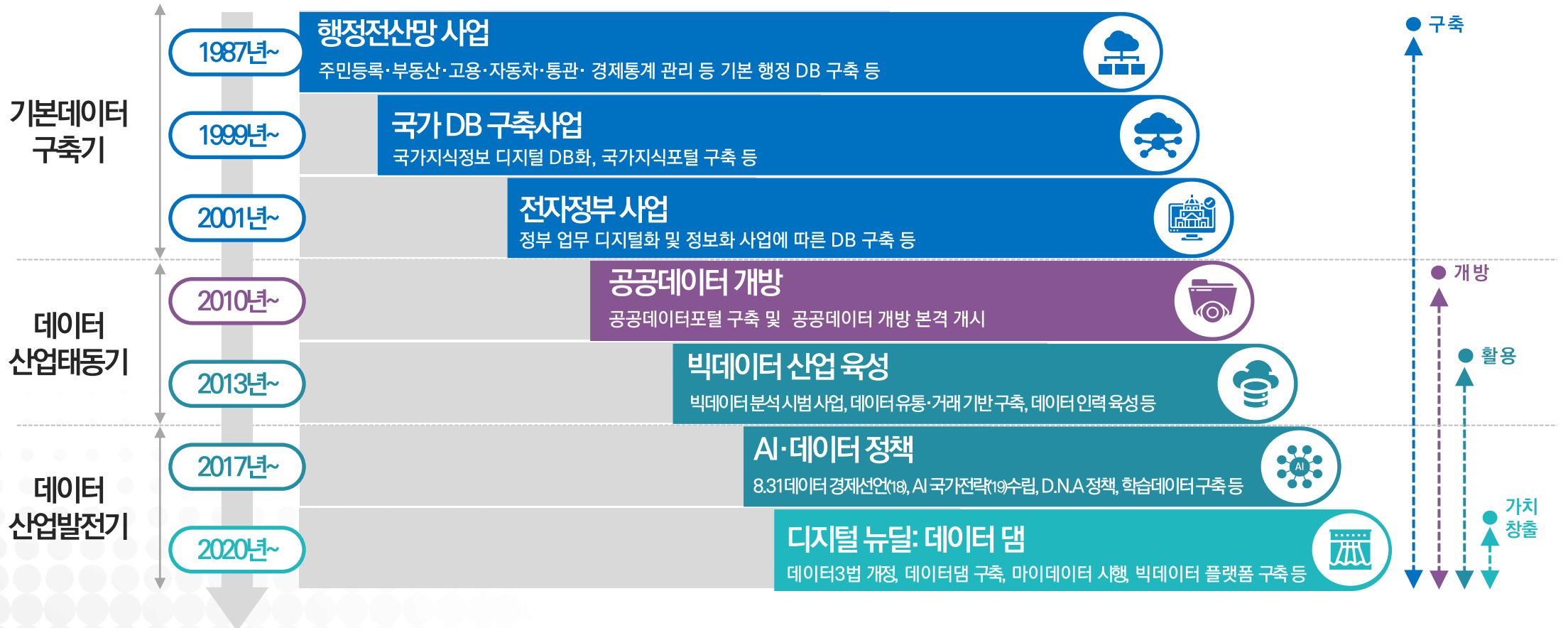
REform(개혁·혁신)

데이터를 완전하게 활용하면 기업과 공공조직 업무, 비즈니스 방식, 절차를 개혁

II. 축적과 개방이 만든 디딤돌 (1/2)

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데이터 정책은 DB 구축에서 데이터 개방 → 활용 → 가치창출 단계로 확대·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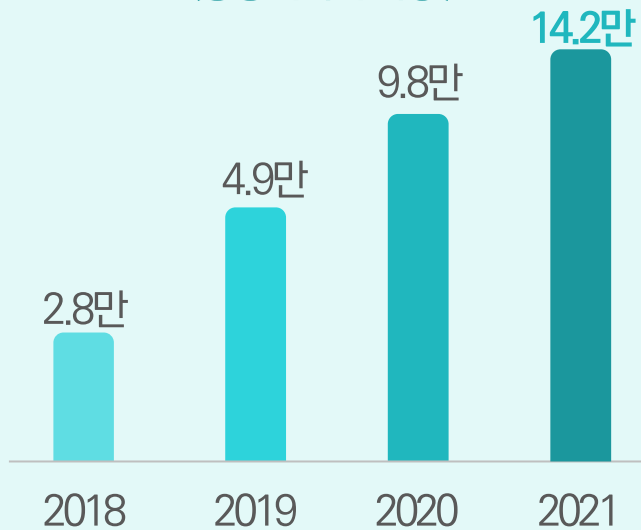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정책 성과

- 대규모 데이터 축적·개방,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대규모 데이터 축적 및 개방

〈공공데이터개방〉



데이터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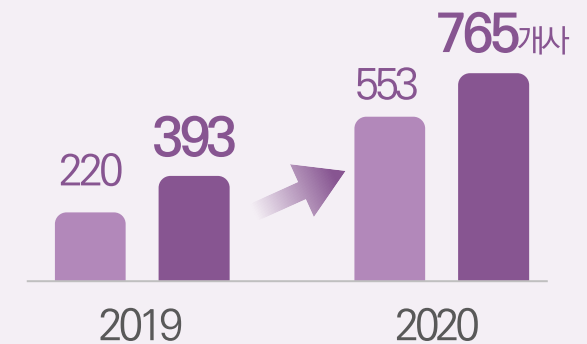
〈데이터기반역학조사지원시스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확인시간을
8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

신산업 등장과 성장

- 인공지능 공급기업 151% ↑
- 데이터 공급기업 94% ↑



III.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가?

진 단

방 향

데이터
시장

민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이터 활용 여건

-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취약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가명정보, 마이데이터 등) 불확실

활용 주체인 개인과
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중심
데이터 생태계
혁신

정부
정책

일관된 방향으로 꾸준히 실천해야

- 공공데이터 개방에 중점을 둔, 공급자 중심 데이터 정책
- 여러 부처와 위원회에 산재된 분절적 거버넌스 체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 확립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산업
적용

국내 산업의 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

-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및 적용 미흡 (국내 빅데이터 도입율 12.3%)
- 전문인력, 컴퓨팅파워, 전문기업 등 데이터 활용 기반 미흡

국민 생활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체감도 제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비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목표

데이터 개방 - 유통 - 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본방향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정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거버넌스 중심'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11대 실천과제

민간중심 생태계 혁신

-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
-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 ⑧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특별 현안 과제 -----

-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9대 서비스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의료

- ① 내 건강정보 한 눈에
- ② 실손보험 자동청구



생활

- ③ 슬기로운 소비생활
- ④ 불법 복제 꿈썩매



복지

- ⑤ 중단 없는 급식 지원
- ⑥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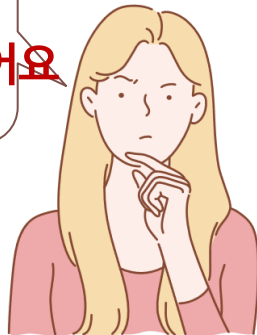
핵심기반

- ⑦ 인공지능 훈민정음
- ⑧ K-이미지 프로젝트
- ⑨ 스마트 항만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민간이
진짜 원하는 **핵심 데이터는 제공이 안돼요**

제공 되는 품질이나 방식, 주기도
제각각이라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어요**



1 ▶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정보, 보험정보 등 핵심 데이터 제공

다양한 제공방식 활용

확인서비스

안심구역
서비스

가명처리

마이데이터

2 ▶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간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민간 제기 애로사항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결함
(데이터누락등)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공공데이터 공급자(공공기관)와 수요자(기업)간의 **간극을 메꿔줄 전문기업**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초기 수요**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가 안돼서 **거래 가능한 데이터 검색이 어렵고,** 가격책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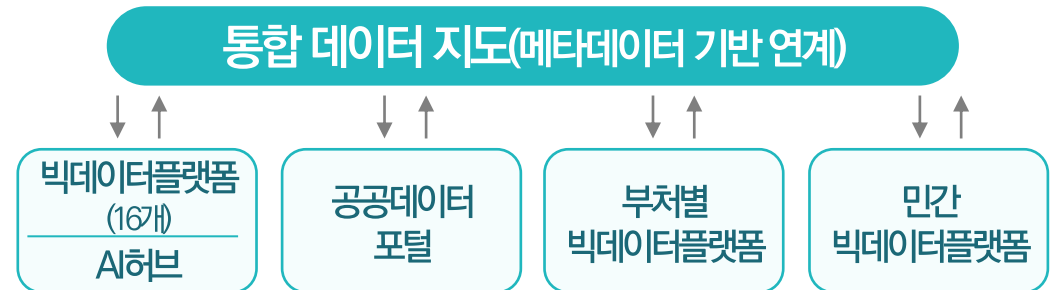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 지원

- 데이터 가공 및 분석을 위한 민간 전문기업 활용 확대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4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로 연계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부족한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해야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 전담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공무원들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워요



5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 전면 개편

-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 전략 마련
- 데이터 중요도 등급에 따른 분류체계 마련 및 보안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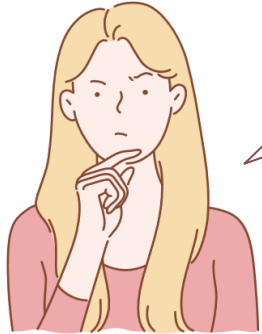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 신설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Once-Only)*” 원칙 기반 데이터 수집 · 공유 방식 구현
- 정보화 사업에 데이터 사전기획 제도 도입
-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제고

* 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금융, 공공, 의료 등 분야마다
마이데이터 정책이 달라서 **혼란스럽고
진입규제**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아**



7 새로운 데이터 활용 제도의 조기 정착



마이데이터

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분야별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준 및 데이터
수집 방식 체계화



가명정보

가명정보 처리 기준, 결합 절차 명확화(사례제시)
및 법적 책임 관련 제도 보완 검토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개선, 제3자 공동 활용 등
데이터 활용성 제고



공공데이터

비밀보장, 목적인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 법상 규정 일괄 정비

데이터의 편향성 및 불균형, 알고리즘 오류 등으로 데이터가 **개인의 차별,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등에 불공정하게 활용될까 걱정되요.



위험이 일상화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관리 회복력 (resilience)의 강화**가 중요해요



8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등 관리 체계 마련
- 데이터 편향 예방을 위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 도입

9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재난 피해집단 신속 파악 기반 구축
-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역, 대피, 지원 등 대응방안 제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상황 분석 및
향후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관련 데이터 보존이 필요해요.

매년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해요



10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기록 · 저장 및 사회 전반의 영향 분석

3개년 데이터 보존

코로나 이전
2019

코로나
2020

백신 코로나
2021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물 관리 데이터의 체계적 통합



물 관리 정보
(환경부)



지방하천 정보
(지자체)



재난안전정보
(행안부)

1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 · 관리



2

실손보험 자동청구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여
보험금 청구 서비스 자동화



3

즐거로운 소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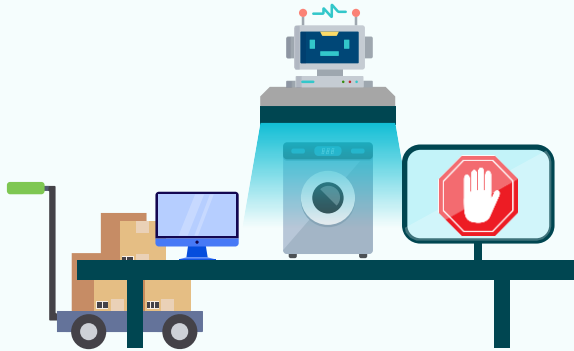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



4

불법 복제 꼼짝마!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



5

중단 없는 급식지원

지자체의 급식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6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7

인공지능 훈민정음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자연어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기반제공



8

K-이미지 프로젝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9

스마트 항만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구축



개 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되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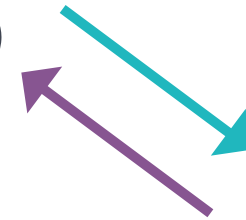
기 업

기업은 데이터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정 부

정부는 과학적 행정으로 똑똑하게 일하고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대 실천 과제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

9대 서비스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

과제 제안



부처 제출과제



민간 제안과제



특위 발굴과제

후보과제 정리

선정기준

-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
- 다부처가 연계된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과제
- 이번 정부 내 집중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

과제 확정



분과위원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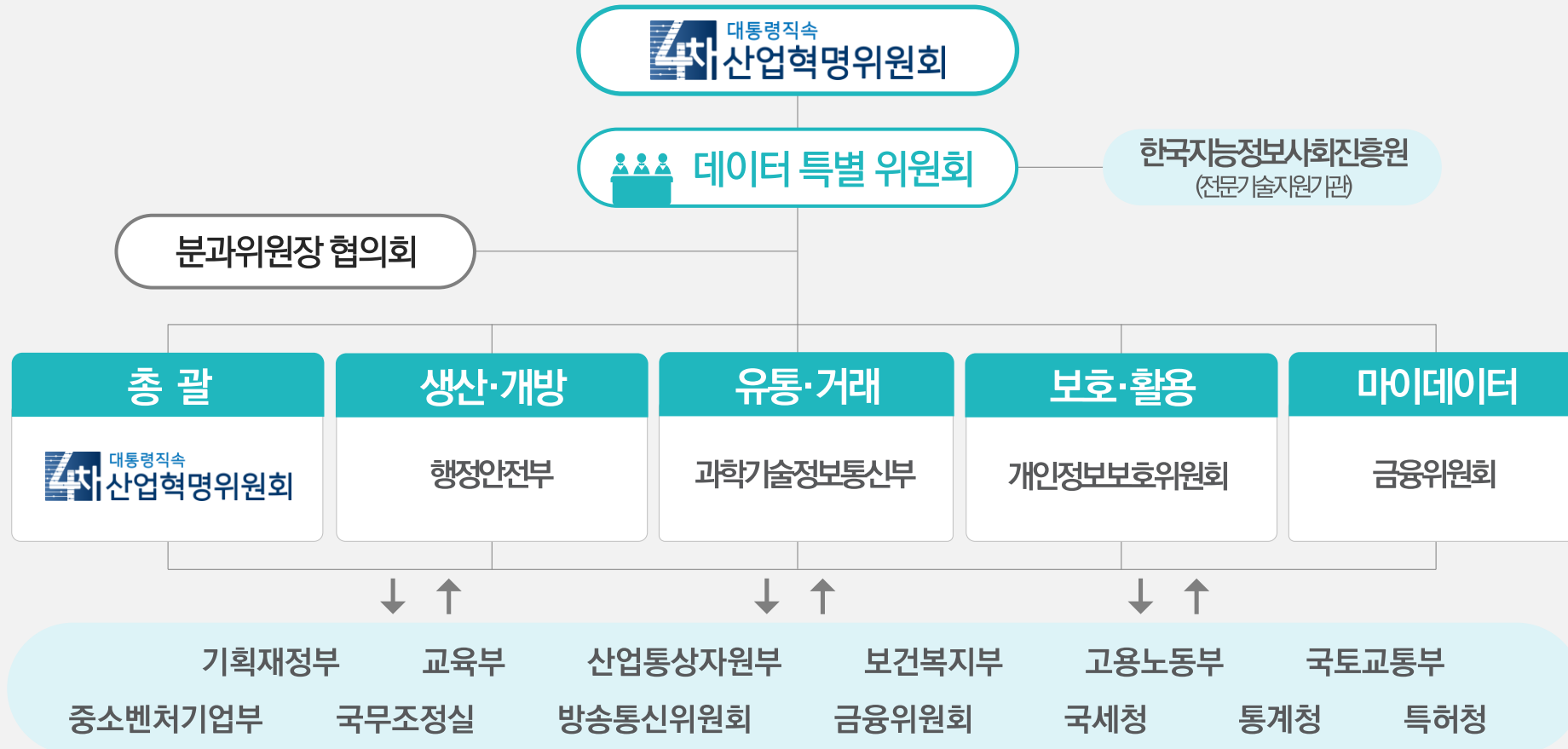
분과위원장
협의회 논의



특위 및
4차위 확정

참고 2 추진체계

- ▶ 현행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개편
- ▶ 4차위 아래 데이터 핵심과제의 발굴과 검토, 부처간 이견조율을 위한 데이터 특위(5개 분과) 신설





감사합니다.